

포스코 '탄소중립' 전방위 협력 세계최대 광산기업과 공동연구

BHP와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광산-철강업 전반 탄소배출 저감
석탄 사용량 감축 기술 개발 추진

생산·운동 등 철강제품 전 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체계 개선

포스코가 글로벌 최대 광산기업 BHP와 탄소중립을 위해 손잡는다.

포스코는 BHP와 탄소중립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산-철강업 전반에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에 나서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BHP는 포스코의 최대 원료 공급사로, 철광석을 비롯해 제철용 연료탄, 니켈 등 연간 1700만 톤 이상의 원료를 공급해오고 있다.

포스코와 BHP는 ▲고강도 코크스 제조 및 바이오매스(Biomass) 활용 ▲공급망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 산정 보고 체계 개선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인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개발 등의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양사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단계적 감축의 일환으로 석탄 사용량을 줄이는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키로 했다. 코크스를 연료로 사용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한 발 나아가 코크스와 수소를 함께 연료로 사용해 코크스 사용량을 줄이고, 수소와 함께 연료



포스코 김학동 대표이사 사장과 BHP 반디타 판트(Vandita Pant) 마케팅·구매 총괄사장이 탄소중립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로 사용하기 적합한 강도의 코크스를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이끼나 해초 등의 친환경 바이오매스 물질을 철강 연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도 함께 수행할 계획이다.

또 원료의 생산, 운송부터 철강제품의 가공에 이르는 공급망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보고 체계 개선을 위한 협력도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철강 제조 전 과정에서 현 탄소배출 현황과 잠재적 탄소 감축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급망 전체 차원에서의 탄소중립 전략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탄소를 포집·활용·저장하여 대기 중에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CCUS 기술 개발에도 함께 나서기로 했다. 향후 양사는 '저탄소 프로젝트 위원회'

를 구성해 협력분야를 구체화하고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김학동 포스코 사장은 "포스코의 제철 기술력과 BHP의 광업 전문성을 활용해 철강 밸류체인 전반에 탄소중립의 중요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는 지난해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선언하였으며, 지난 10월 6일부터 8일까지는 탄소중립이라는 전 세계 철강사들의 공동 목표를 위해 세계 최초로 수소환원제철 국제포럼(HyIS: Hydrogen Iron & Steel making Forum 2021)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글로벌 차원의 협업 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탄소중립을 주도해 나갈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임직원 혁신 아이디어 모아 LG그룹 '디지털 전환' 속도

LG사이언스파크 'DX페어' 개최
160여개팀 심사 통해 6개팀 선정
사업화 가능 아이디어, 실행 검토

LG그룹이 디지털 전환(DX)을 확대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LG사이언스파크는 14일부터 'LG DX 페어'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행사는 그룹의 우수 아이디어를 시상하고 사례를 공유하며 DX를 가속화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행사로 'DX 아이디어톤'과 'DX 사례 공유', '글로벌 석학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번 행사는 임직원들 누구나 손쉽게 참여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에서 진행됐다. 9월 한달간 160여개 팀 중 전문가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최종 6개 팀을 선정했다.

▲물질과 물질 등 복잡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화학 계열 논문과 특허를 하루에 1,000건씩 분석해 연구자가 원하는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화학 분야 특화 인공지능 모델 ▲공정의 설비 불량 진단 시간을 기존 1~2시간에서 1분으로 단축시키는 빅데이터 자동 분석 기술 ▲24시간 언제든지 1만 명의 고객과 동시에 소통하며, 궁금한 점을 해결해주는 인공지능 서비스 엔지니어 'David' 개발 등이다.

뛰어난 디지털 기술로 사회에 공헌

한 이들에게 'DX 특별상'도 수여됐다. LG CNS 아키텍처최적화팀은 지난 7월 무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예약 시스템 장애 상황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백신을 예약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지난해 EBS 원격 수업 접속 장애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해결사 역할을 했다.

LG는 신규 사업화가 가능한 아이디어들은 관련 사업 부서에 전달해 사업성 검토를 통해 실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LG이노텍, LG AI연구원과 함께 특허 5만건을 4시간만에 분석해 연구에 필요한 핵심 정보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문장 인식 모델 개발 ▲LG CNS, 국내 최초로 한국어영교육학회의 영어 교육 인증을 받고, 지난해 출시 후 100만 명이 가입한 인공지능 기반 인기 영어 교육 프로그램 'AI 튜터' 개발 ▲LG 생활건강, 경력 보유 여성을 대상으로 라이브 커머스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뷰티 유튜브'로 성장한 이들을 통해 고객들과 소통하는 시스템 구축 등 전 계열사로 확산 적용하고 있는 다양한 디지털 전환 사례도 공유됐다.

또 '이노베이터 메소드'의 저자이자 디지털 전환 전략 분야의 글로벌 석학인 네이션 퍼 프랑스 인시아드 경영대학원 교수가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발굴'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재용 기자 juk@

삼성전자, 가상현실 속 디지털프라자 오픈

비대면 쇼핑 'VR스토어' 운영
1대1 맞춤형 화상 상담도 제공

삼성전자가 메타버스로 디지털프라자를 연다.

삼성전자는 17일부터 '삼성 VR 스토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VR 스토어는 온라인 상으로 실제 매장 동등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는 '비대면 통합 쇼핑 서비스'다. 제품 체험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자신에게 딱 맞는 제품을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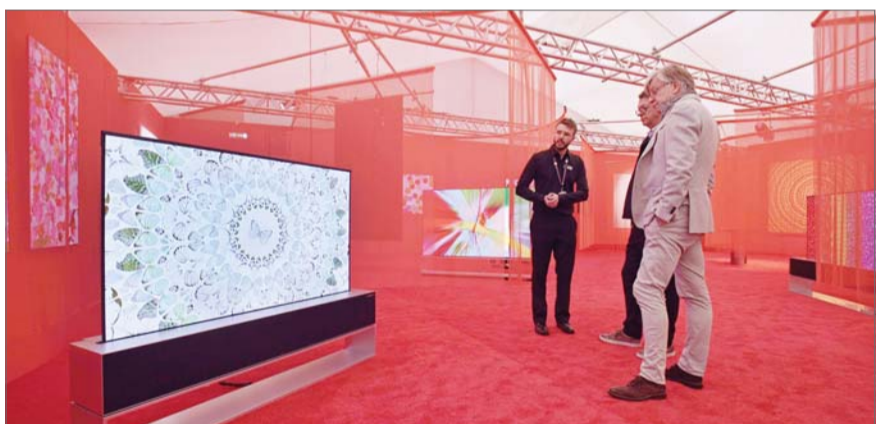
VR 공간은 PC나 모바일 기기의 웹 브라우저로 접속할 수 있으며, 1층 모바일, 2층 영상·가전제품 코너로 구성된다. 냉장고와 세탁기 문을 여는 등 생생한 제품 체험도 가능하다.

특히 삼성 VR 스토어는 'e-디테일러'와 연계해 전문적인 제품 상담도 제공한다. e-디테일러는 지난 6월 처음 도입한 1:1 맞춤형 화상 상담서비스다. 소비자에 전문적으로 알맞은 제품을 추천해준다는 의미로, 별도 앱 설치 없이 전국 33개 매장 전문 상담사와 오프라인 수준 상담을 제공한다.

비대면 서비스로 거리가 멀거나 방문이 어려운 소비자에 인기가 높다. 론칭 3개월여만에 상담 건수가 4배 가량 증가했다. 삼성전자는 e디테일러 서비스 연동 매장을 점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 한국총괄 권금주 상무는 "변화하는 소비자와 유통 환경을 반영해 선보인 삼성 VR 스토어와 e-디테일러 서비스는 소비자들에게 시·공간 제약 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구매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LG전자 부스

/LG전자

LG 올레드 TV, 세계 3대 아트페어 참여

영 리젠트파크 '프리즈아트페어'
데미안 허스트와 컬래버 전시 진행

LG전자가 올레드 TV로 세계 3대 아트페어를 장식했다.

LG전자는 13일(현지시간)부터 영국 런던 리젠트파크에서 열린 프리즈아트페어에 참가해 현대미술 작가 데미안 허스트와 컬래버레이션 전시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프리즈 아트페어는 2003년 시작된 영국을 대표하는 아트페어다. 프랑스 피아크와 스위스 아트 바젤 등과 3대 아트페어로 꼽힌다. 전자 업체가 프리즈 아트페어에서 단독 갤러리를 운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G전자는 150㎡ 규모 공간에 ▲LG 시그니처 올레드 R(모델명: 65R1) ▲LG 시그니처 올레드 8K(모델명: 88Z

1) ▲LG 올레드 예보(모델명: 77/65G1) 등 LG 올레드 TV 10여 대를 활용해 갤러리를 조성했다. '회화의 역사(LG OLED X Damien Hirst: A history of Painting)'라는 전시 주제에 맞춰 데미안 허스트의 대표 작품들을 올레드만이 가능한 생생한 화질로 표현한다.

갤러리는 원작뿐 아니라 올레드 TV를 활용한 디지털 작품 등 다양하게 데미안 허스트 작품을 소개한다. 롤러블 TV도 말려들어갔다 펼쳐지는 연출을 이용해 작품을 구현했다.

친환경 요소를 확장 적용한 전시 부스 디자인으로도 눈길을 끌었다. 장식을 최소화한 미니멀 디자인을 적용하고, 재사용 가능 패브릭을 활용한 것. LG 올레드 TV는 일반 LCD TV 대비 플라스틱 사용량이 적고 자원 효율이 뛰어나다.

/김재용 기자

SK온, UNIST와 배터리 인재육성 나서

e-SKB 석사과정 모집 공고
미래산업 기술 인재 조기 양성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사업 법인 SK온이 대한민국 배터리 인재 양성의 산실 역할을 해 온 UNIST 대학원과 협력해 배터리 인재 육성에 나선다.

SK온과 UNIST는 12일 'e-SKB(education program for SK Battery)' 석사과정 모집 공고를 내고 배터리 인재 모집을 시작했다. 양측은 미래 산업



인 배터리 기술분야에서 인재를 조기에 양성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해 e-SKB 프로그램을 개설키로 했다.

한국전지산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배터리 업계에 부족한 석·박사급 인력은

1000명 이상이다.

SK온과 UNIST는 2022년 3월 UNIST 대학원 에너지화학공학과(배터리 과학 및 기술) 진학이 가능한 미래 인재를 대상으로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기간은 이달 21일 까지다. 접수를 희망하는 인원은 UNIST 대학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배터리과학 및 기술-SK이노베이션(SK온) 특별전형'으로 지원하면 된다.

해당 전형 입학생에게는 석사 2년간 등록금과 학원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석사과정 졸업 후 SK온 취업에 특전을 제공받는다. /양성운 기자 ysw@